

# 분리수거하고 올게!

-경제학으로 이해하는 사회현상-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 혹은 거주해 본 경험이 있다면, 분리수거(정식 명칭은 “분리배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상황에 한 번쯤은 놀란 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state)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필자가 거주하였던 뉴욕의 공동주택에서는 일반쓰레기, 종이류, 병·캔·플라스틱의 세 종류로만 분리배출하면 되었고, 종량제봉투도 별도

로 존재하지 않아서 마트에서 제공하는 일반 비닐봉투에 대부분의 생활 쓰레기를 모두 담아서 내놓고는 했다. 우유팩은 깨끗이 씻어서 자르고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는 등 분리수거에 익숙하고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놀랍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필자 역시 미국에 거주하며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쓰레기 배출장소인 건물 지하에 내려가고는 했었는데, 재미있게도 경제학은 필자의 그런 불편했던 마음과 미국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필자가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습관이 몸에 배서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무분별하게 배출된 쓰레기는 결국 환경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분리수거와 종량제봉투 이용은 쓰레기 배출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사적으로 내부화(internalization)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다. 분리수거를 위해 들어야 하는 시간과 정성, 분리수거장에 계시는 경비아저씨의 시선, 종량제봉투 구입 비용, 종량제봉투가 다 찰 때까지 집에서 보관해야 하는 쓰레기 등 이 모든 것들이 쓰레기 생산의 명시적·암묵적 비용이다. 이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부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쓰레기 배출 절감과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은 Ebreo and Vining(2001), Barr et al.(2001), Tonglet et al.(2004) 등에서 논의된 것처럼 다른 차원의 노력이다. 하지만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두 노력을 같은 범주로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실제로 종량제가 실시된 1995년에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362만 톤으로 1994년의 약 445만 톤에 비해 18.7% 감소하였으며, 동시에 재활용품 수거량은 1994년 약 115만 톤에서 1995년 약 151만 톤으로 31.0% 증가하였다(이신 외, 2014).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왜 분리수거 없는 쓰레기 배출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경제학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학부 환경경제학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상기해 보자면, 균형 쓰레기 배출량(equilibrium waste generation)은 쓰레기 배출의 편익과 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땅이 많다는 점에서 쓰레기 배출의 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의 균형 쓰레기 배출량으로 이어지고, 정부 및 민간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덜 해도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미국의 재활용률(recycling rate)은 2014년 기준 34.6%로 우리나라의 59.0%를 크게 하회한다(EEB 2018, 미국은 조사대상 25개국 중 25위, 한국은 4위).

이렇듯 경제학은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 주며, 그래서 경제학은 “what is”를 설명하는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경제학은 “what ought to be”를 찾는 규범경제학

(normative economics)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의 쓰레기 배출량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제도가 왜 다른지를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기에, 경제학자들은 이론과 모형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배출량과 이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쉽게도 이는 필자의 전공 분야는 아니므로, 필자가 전공한 거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내 보고자 한다.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도모하고 우리의 후생(welfare)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후생을 측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직관적인 것은 소비 수준을 통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가계의 효용은 소비의 함수이므로 우리의 소비 수준이 높다는 것은 곧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비 변동(consumption fluctuations)을 이용하여 계산된 후생 비용(welfare cost)은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에서 정책 혹은 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정부지출의 증가가 경기부양의 효과는 있지만, 민간의 소비를 감소시키기에 후생이 감소한다는 견해를 고전학파가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리수거가 우리의 후생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소비 수준이 분리수거를 할 때 더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는 언뜻 과도한 소비와 과도한 쓰레기 배출은 비례한다는 통념과 반대되는 듯 보인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거시경제학에서의 경제주체는 오늘날만이 아닌 평생의 소비 수준을 극대화하는 문제에 직면한다는 사실이다. 즉, 가계는 오늘의 소비만이 아니라 미래의 소비 역시 고려한다. 간단하게는 2기간 모형으로 시작하여서 나의 수명이 다하는 N기간 모형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나의 후세대와 그 후세대의 소비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주체가 직면하는 시계(time horizon)는 무한이다.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여 오늘의 소비를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환경문제로 인하여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소비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후생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가 경제학을 이용해서 거창하게 살펴본,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외부불경제가 어느 정도이고, 균형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고, 후생 비용이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George Akerlof가 가격경직성을 설명하기 위해 거론하였던 근사한 합리성(near-rationality) 이론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바는 분명하다. 매 순간 완벽한 합리성 하에서 사회적으로 최적의 쓰레기 배출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면,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종량제봉투 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도 현관문을 나서며 아내에게 말한다. “분리수거하고 올게!” 